

<서평>

식물을 통해 성경을 다시 읽는 한 권의 책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류모세

서울: 두란노, 2008, 316쪽.

이영미*

1. 시작하는 말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성서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니 어렵다기보다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이스라엘 현지 선교사로 9년째 사역하고 있는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는 성서 식물에 관한 지식을 깨우쳐 본문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재미있는 내용과 집필이 책 제목처럼 성경을 활짝 열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다. 한국에서 한의학을 전공하고 이스라엘에서 서양의학으로 박사 과정까지 마친 저자의 해박한 지식도 돋보인다.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는 총 2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저자는 각 장마다 성서의 식물에 관한 상식적 질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데 그 답변들이란 다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상식을 뒤엎는 것들이 많다. 이 서평에서는 책이 소개하는 식물 이야기

* 한신 대학교 교수, 구약학

중 흥미로운 것들만 선별해서 소개하여 책의 진미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2. 새로운 본문 이해를 돕는 식물 상식들

책을 읽으면서 식물에 대한 상식을 통해 예전에 언뜻 이해가지 않았던 의미가 풀린 몇 가지 사례를 책의 내용을 대신하여 소개한다. 소재명은 저자가 사용한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1.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

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접하는 질문이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이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무화과나무는 한국의 무화과나무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다섯 번 열매를 맺는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여름)와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겨울)로 나뉜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양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나무는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 긴 여름 동안 무화과 열매를 다섯 차례 맺는다. 유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과게’라고 하고,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무화과는 ‘테에나’라고 한다(류모세,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 16).

무화과에 관한 이러한 시간적 배경을 알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마가복음 11장뿐 아니라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령 호세이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묘사하면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호 9:10)이라고 말한다. 또한 미가는 의인이 사라진 유다 말기의 상황을 묘사하면서, “재앙이로다 나와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갈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미 7:1) 이러한 구절은 추운 우기(겨울) 동안 단 열매를 먹지 못한 이들이 건기(여름)의 시작과 함께 처음 열리는 무화과 과계를 얼마나 고대했는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무화과나무는 종말을 상징한다. 이는 무화과나무가 여름을 알려주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어로 ‘여름’과 ‘종말’은 어원이 같다. 아모스가 여름 과일 광주리로 종말을 예언할 때도 이 두 단어의 언어 유희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이지만 유대인들의 사계절은 가을에서 시작하여 겨울, 봄으로 이어지고 여름이 끝이다. 이스라엘의 새해가 10월에, 나팔절(Rosh Hashanah)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사계절의 끝은 여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깝다는 말은 곧 종말이 가깝다는 말로 들리고 여름을 상징하는 과일인 무화과를 내는 무화과나무는 종말을 상징하는 나무로 비친다. 우리와는 다른 계절의 순환 주기를 깨달으면서 ‘카이츠’(קַיִץ)와 ‘케츠’(קֶץ)의 언어유희를 넘어서 여름이 종말의 은유로 사용되는 또 다른 이유를 보게 된다.

결국 질문의 답은 무화과나무가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열매(과계)를 맺지 못한 결과로 저주를 받은 것이다.

2.2.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목자와 뽕나무(눅 19:4)

서평자의 상식을 깬 두 번째 설명은 뽕나무에 관한 소개였다. 성경

에 나오는 식물 가운데 번역이 잘못된 것이 종종 있다. 뽕나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엉뚱하게 번역된 것이다. ‘돌무화과 나무’와 이것이 우리 말로 번역된 ‘뽕나무’는 생긴 모양새도 열매도 전혀 비슷한 구석이 없기 때문이다.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이를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하긴 했지만 『개역개정』은 『개역』의 ‘뽕나무’를 그대로 유지하여 번역하였다(대상 27:28, 암 7:14 참조). 성서를 읽는 한국 독자라면 뽕나무라는 단어를 읽으면 당연히 한국의 뽕나무를 떠올린다.

뽕나무를 떠올리며 성경을 읽는 한국 독자들은 자신을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라고 소개하는 아모스 7장 14절의 구절을 접하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암호문과 같은 이 구절을 저자는 너무도 쉽게,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돌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쉬크마’다. 이는 ‘재활’이나 ‘갱생’을 뜻한다(77). 유월절 즈음인 초여름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무화과나무와 달리, 돌무화과 나무는 한 여름이 되어서야 구슬만한 열매를 수없이 맺는다. 이것들은 그대로 두면 썩어서 먹을 수 없다. 그러나 뽕나무 위에 올라가 바늘로 열매들을 일일이 뚫고 그 자리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 무화과처럼 단 열매가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뽕나무 배양으로 표현한 것이다. 전문용어로는 ‘blissa’라고 한다. 뽕나무 배양은 유대인 신년(나팔절)인 10월 전에는 반드시 마쳐야 하는 작업이다. 그 시기를 놓치면 열매는 전혀 먹을 수 없게 된다(82).

이러한 설명은 종려나무가 많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대답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삭개오는 뽕나무를 배양하기 위해 목자들이 뽕나무를 올라가는 가운데 자신도 그냥 묻어서 조용히 예수님을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모스의 경우는 어떠한가? 성서에 ‘발라스’(בַּלַּס)동사가 쓰인 경우는 아모스 7:14에 분사형으로 쓰인 경우 한 번이지만 저자가 말한 뽕나무 배양에 관한 전문용어와 어원이 같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저자는 뽕나무 배양에 관한 자신의 설명을 근거

로 아모스는 밀밭 주인들의 횡포와 노동력 착취에 노출된 가난하고 힘없는 목축 노동자라고 결론짓는다. 드고아는 광야와 인접한 시골 마을이고 양들을 위해 요단 평야의 밀밭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뽕엘 출신의 목자들과 만나고 당시 거대한 밀밭 소유주는 사마리아 부자들이었는데 그들의 사치와 사마리아의 극도의 빈부격차의 실상을 듣고 북왕국으로 가서 그 내부의 사회상을 통렬하게 비판했다고 말한다(80-81).

목자는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뽕나무 배양은 요단 평야의 밀밭 사이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은 동시에 하는 직업이 아니라, 계절별 다른 두 직업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즉, 목자가 우기 동안에는 광야에서 풀을 먹이지만, 풀이 바싹 마르고 돌멩이 외에는 남은 것이 없는 건기 동안에는 요단 평야의 밀밭으로 양 떼들을 데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건기가 시작되는 유월절에서 7주가 지나면 칠칠절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밀 추수기이다. 목자들이 양떼들을 데리고 요단 평야로 내려오는 이 시점은 밀 추수가 끝나고 밀 밀동이 남아있는 때이므로 목자들은 추수가 끝난 밀밭에서 밀 밀동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 대가로 목자들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 배양을 해주는 것이다.

2.3. 아론의 지팡이에는 왜 살구꽃이 피었을까? 흔들어 깨우는 살구나무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 아론의 대제사장권을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팡이 열둘을 취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지성소의 법궤에 두게 하셨다.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혔다(민 17:8). 실은 이 꽃은 아몬드 꽃으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많은 꽃들 중 하필 살구꽃일까? 저자는 이를 히브리어의 언어유희에서 해답을 찾는다. 즉 아몬드 꽃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케드’(שָׁקֵד)가 “흔들어 깨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아론의 지팡이에 아몬드 꽃이

핀 것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야 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상기시키며 아론의 대제사장의 권위를 변호해주신 것이라고 설명한다.

2.4. 엘리야는 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간구했을까? 사람들의 한탄을 들어주던 로뎀 나무

저자는 로뎀 나무를 소개하면서 “광야에 있는 로뎀 나무는 빗자루같이 뺏어 있어서 그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로뎀 나무 그늘에서나마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한다. 또한 로뎀 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시궁창’을 뜻하며, 따라서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했다는 것(열상 19:4)은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떨어지자 아들 이스마엘을 로뎀 나무 아래 둔다(창 21:14-16, 한글 성경에는 떨기나무로 번역되어 있으나 로뎀 나무를 말한다.) 이 구절에서도 로뎀 나무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비참한 상황을 상징한다.

바로 이어서 로뎀 나무 숲불에 관한 이해를 통해 시편 120:3-4를 다시 읽는다. 우리나라의 “세 치 혀를 잘 놀려야 한다”, “말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는 속담과 같이 간사한 혀의 놀림을 경계하는 시편 기자는 로뎀 나무 숲불 비유를 사용한다. 시편 기자의 말이다.

“너 꾀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 나무 숲불이로다.”(시 120:3-4)

그런데 이 시편 구절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

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렘 나무 숲불’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에 대하여, 로렘 나무는 인생의 비참함을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 수천 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온 유목민(베두인)들의 추운 밤을 지켜준 공헌자이기도 하다. 로렘 나무 숲불의 특징은 오래 타는 것이다. 실제로 로렘 나무 숲불은 3일 정도 탄다고 한다.

이러한 로렘 나무 숲불의 특성을 이해하면 시편 120:4의 뜻이 이해가 된다. 즉, 궤사한 혀에서 나온 말은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같이 멀리 갈 뿐아니라 치명적이고, 로렘 나무 숲불이 오래 타듯이 그 효과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준다는 뜻이다. 『탈무드』에 “로마에서 한 말로 시리아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경구가 있기도 하다.

로렘 나무에 대한 설명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예전에 몰랐던 숲불에 관한 정보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로렘 나무에 대한 설명과 어원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로렘의 어원이 ‘시공창’을 뜻한다는 설명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며, 로렘 나무가 “빛자루같이 뻗어 있어서 그들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서의 식물에 관한 다른 책들의 설명을 보면 로렘 나무는 높이 2-3미터 자라며, 광야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좋은 나무 중의 하나라고 소개된다. 또한 로렘 나무 숲이 길고 크게 자라는 로렘 나무에 대한 뿌리의 설명 없이 이어지고 있어서 앞에 로렘 나무의 왜소함을 근거로 비참한 상황을 상징한다는 저자의 논지와 상반되어 독자가 의아하게 생각하기 쉽다. 성서 해석에 적용할 때 좀 더 신중한 접목이 필요하다.

3. 성서 해석에 적용할 때 아쉬운 점들

위에서 성서의 식물에 관한 설명은 팔레스타인 기후와 문화, 특별히 식물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그와 연관된 성서 본문을 다시 읽도록

도와준 몇 개의 예를 소개하였다. 전체적으로 글이 쉽고 재미있어 좋다. 그럼에도 식물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이 본문 이해나 주석을 하는 데 너무 단순한 유비나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눈에 띄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미 로렘 나무의 경우는 책의 내용 소개와 함께 지적한 바 있다.

몇 가지 예를 덧붙이면, 저자는 성서에 18번 언급되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인가를 질문하면서 이는 유대인들에게 꿀은 종려나무 열매인 대추야자로 만든 식물을 뜻한다고 결론짓고 이 땅은 ‘젓으로 대표되는 목축업과 꿀로 대표되는 농업이 조화를 이룬 곳’이라는 뜻이라고 결론짓는다(239).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가나안 땅에 대한 풍부한 은유를 너무 문자적 의미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 된다.

다른 한 예로 저자가 뽕나무로 번역된 돌무화과 나무 배양에 관한 언급을 근거로 아모스를 가난한 목축 농업자로 너무 성급하게 결론짓는다. 아모스 1:1은 아모스를 드고아의 노케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소개한다. 노케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열왕기하 3:4에서 이 용어는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매년 양 10만 마리를 헌납했던 모압의 메사 왕에게 적용된 단어이다. 또한 우가랏 문헌들에 전문 직종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군인들과 사제들과 함께 노케딤이 언급되고 있다. 역대상 27:28에서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명단에 게텔 사람 바알하난은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다고 소개된다. 탈무드에서도 아모스가 부유했다고 소개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뽕나무 배양(blissa)의 현대적 용어를 적용하여 성급하게 아모스를 가난한 목자로 결론짓는 것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그가 직접 뽕나무에 올라가 돌무화과를 배양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목축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위치의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의 결론이 틀렸음을 지적하기 보다 여기서 저자가 뽕나무 배양의 문화를 통해 너무 성급하게 아모스의 배경을 결론짓는 것은 주석적인 문제를 낳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유대의 문화에 익숙한, 아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탈무드에서 아모스를

부유한 자료 해석하는 것도 그 이유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끝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성서가 식물의 이름을 번역할 때 한국의 성서 번역가들이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했다. 올리브를 감람나무로, 돌무화과를 뽕나무로 번역하거나 다른 히브리어 나무 명칭을 동일한 한국어 명칭으로 번역하는 경우(예, 역대상 14:15는 사시나무를 뽕나무로 번역하고 있다.)도 많이 있었다.

늘 생각하지만 성서를 읽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은 기쁨이다. 성서의 식물에 대한 지식을 넓혀주어 이러한 기쁨을 배가시켜준 이 책을 평신도나 목회자들에게 권한다.